

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4. 8. 18.(일)

동대구역~경주역 간 KTX-산천 열차 궤도 이탈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.

- 8월 18일(일) 16:38분경 경부고속선 동대구역~경주역 간 운행 중이던 하행 KTX-산천 제39호* 열차 일부분이 궤도를 이탈하였습니다.
 - * 서울 14:28~부산 17:14, 10량, 승객 384명
- 사고 즉시 한국철도공사는 초기대응팀을 투입하였으며, 승객은 18:08분경 후속 KTX 제87호 열차(20량)로 대체환승을 완료하였습니다.
 - 현재 부상 등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, 후속 열차 지연은 집계 중입니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철도안전정책관, 철도안전감독관, 철도특별사법경찰(소속기관), 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(소속기관), 한국교통안전공단(산하기관)으로 구성된 철도재난상황반을 현장에 즉시 투입하여 사고 수습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
담당 부서	철도국	책임자	과 장	조성균 (044-201-4600)
	철도안전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이재훈 (044-201-4603)